

한국의 대ASEAN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

배 홍 균

상지대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

ASEAN지역의 IT 산업은 우리에게도 지역내 IT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역 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ASEAN IT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지역내 국가들과의 IT 산업 관련 R&D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미와 ASEAN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시장흐름과 무역간의 결합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지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양지역간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해 보는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I. 서 론

ASEAN이 새로운 정보통신산업 투자지역의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구촌 글로벌화에 따른 정보고속도로인 인터넷의 성장으로 미국과 유럽에 가려져있던 아세안의 경제를 일으키며 글로벌경제의 중심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 ASEAN은 그동안 미국, 일본시장 일변도에서 시장의 다변화를 기할수 있는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이다. 특히 IT산업에 있어서 ASEAN지역으로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주요 시장개척

와 평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 제품은 소비자의 제품분류나 범주화 및 제품특성에 관한 평가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며, 전형적 상표는 회상빈도나 속도에서 더 성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lba의 대상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 아세안 수출은 ASEAN 경기가 최고조였던 96, 97년 잇따라 200억달러를 넘어 수출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로 98년에는 153억달러에 그쳤다. ASEAN 회원국 가운데 최대시장인 대 싱가포르의 수출은 33.5%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증가했고 인도네시아는 43.2%, 베트남은 25%였다. 그러나 전자 등 분야에서 경쟁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1.6%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과 ASEAN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 즉 ASEAN의 대외수출이 증가하면 우리의 ASEAN에 대한 수출도 함께 늘어나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및 「기업내부교역(intracorporate trade)」 관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 IT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IT 분야가 한국 경제성장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했으며 전체수출에서 IT산업 비중이 29%인 510억달러에 달했다. 또한 ASEAN 등 해외 IT인력의 교류, 싱가포르 등 정보통신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미와 ASEAN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시장 흐름과 무역간의 결합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지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한·일·미의 대ASEAN 무역결합도

한·ASEAN 각국의 수출·입 특화구조에 따른 양국간 무역예상수준과 실제로 거래된 무역액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역결합도 지수를 구하여 이용한다. 무역결합도

지수¹⁾의 분석은 일국과 상대국의 무역을 세계속의 비중과 상호 대비함으로써 얻을수 있기에 중요하다.²⁾ 따라서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는 국제무역의 상황에서 한국과 ASEAN 각 국가간의 무역결합도이론을 통해 지난 20년에 걸친 한·ASEAN간의 수출의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주요 무역시장인 미국과 일본과의 ASEAN 각 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별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의 상대적 집중도를 나타내는 무역결합도지수(I_{i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_{ij} = (X_{ij}/X_i)/(X_j/X) \dots \dots \dots \text{式 (1)}$$

여기에서 X_{ij}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 X_i 는 i 국의 총수출, X_j 는 j 국의 총수입, X 은 세계의 총수입을 각각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무역결합도지수는 i 국의 총수출에서 j 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의 총수입에서 j 국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式 (1)의 값은 1을 기준으로 하여, 만약 $I_{ij} > 1$ 면, i 국의 총 수출액중 j 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j 국의 총 수입액이 전세계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것을 나타내며, i 국의 수출이 j 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I_{ij} < 1$ 는 반대로, i 국의 수출이 j 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I_{ij} = 1$ 인 경우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이 i 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j 국의 총수입이 전세계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일치되어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일정시점에서 국별 분석이 가능하고 동시에 시계열비교가 가능하여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Yamazawa, "Intensity Analysis of World Trade Flow",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0-2(1970), pp.61~90.

〈표 1〉 한국의 대ASEAN 국별 무역결합도 변화추이

| 년 도 | ASEAN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필리핀 | 태 국 |
|----------------|-------|-------|-------|-------|-------|-------|
| 1978 | 1.178 | 0.685 | 1.141 | 1.131 | 1.720 | 1.441 |
| 1981 | 1.345 | 1.176 | 1.658 | 1.198 | 1.777 | 1.136 |
| 1984 | 1.175 | 0.966 | 0.953 | 1.176 | 2.392 | 1.358 |
| 1987 | 1.833 | 1.798 | 1.346 | 2.255 | 1.807 | 1.427 |
| 1990 | 1.777 | 1.308 | 2.668 | 1.758 | 1.898 | 1.584 |
| 1992 | 2.263 | 1.431 | 3.560 | 2.400 | 2.516 | 1.890 |
| 1994 | 1.973 | 1.246 | 3.569 | 2.028 | 2.538 | 1.515 |
| 1996 | 2.138 | 2.290 | 3.087 | 2.031 | 2.301 | 1.526 |
| 1998 | 2.004 | 2.586 | 2.733 | 1.393 | 3.291 | 1.412 |
| 연평균 (78-98) | 1.885 | 1.583 | 2.735 | 1.812 | 2.322 | 1.518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UN. 각년도.

Commodity trade Statistics, UN. 각년도에 의해 산출

우리나라의 수출이 ASEAN지역과 각국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20년간의 무역결합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ASEAN 지역과의 무역결합도는 1978년 1.178에서 1998년 2.004에 이르기까지 고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별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6년부터 수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전반기를 기점으로 상승했다가 1998년 1.393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태국과는 전반적으로 큰 고저의 차이없이 1.5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무역결합도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ASEAN 각국가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무역결합 비중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일본은 ASEAN 지역과 무역결합도면에서 2이상의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별로는 태국이 일본과의 무역결합도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아세안 전체평균과 비교해서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큰 고저없이 2.1이상의 결합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ASEAN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표 2〉 일본의 대ASEAN 국별 무역결합도 변화추이

| 년 도 | ASEAN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필리핀 | 태 국 |
|----------------|-------|-------|-------|-------|-------|-------|
| 1978 | 2.836 | 2.179 | 3.267 | 2.274 | 3.908 | 3.331 |
| 1981 | 2.488 | 2.177 | 2.984 | 2.076 | 3.218 | 2.644 |
| 1984 | 1.968 | 1.770 | 2.024 | 1.800 | 2.638 | 2.364 |
| 1987 | 2.102 | 1.679 | 2.157 | 2.004 | 2.406 | 2.231 |
| 1990 | 2.633 | 2.305 | 2.668 | 2.403 | 1.898 | 3.378 |
| 1992 | 2.416 | 2.306 | 3.560 | 2.181 | 2.516 | 2.882 |
| 1994 | 2.526 | 2.255 | 3.569 | 2.321 | 2.538 | 2.937 |
| 1996 | 2.612 | 2.555 | 3.087 | 2.066 | 2.301 | 3.301 |
| 1998 | 2.248 | 2.288 | 2.733 | 1.733 | 3.291 | 3.121 |
| 연평균 (78-98) | 2.422 | 2.257 | 2.560 | 2.110 | 2.642 | 2.981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UN. 각년도.

Commodity trade Statistics, UN. 각년도에 의해 산출.

〈표 3〉 미국의 대ASEAN 국별 무역결합도 변화추이

| 년 도 | ASEAN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필리핀 | 태 국 |
|----------------|-------|-------|-------|-------|-------|-------|
| 1978 | 1.152 | 1.145 | 0.608 | 1.333 | 1.964 | 0.826 |
| 1981 | 1.087 | 1.138 | 0.565 | 1.151 | 2.273 | 0.890 |
| 1984 | 1.291 | 1.209 | 0.567 | 1.485 | 3.957 | 0.956 |
| 1987 | 1.700 | 2.113 | 0.798 | 1.826 | 2.433 | 1.451 |
| 1990 | 1.094 | 1.041 | 0.775 | 1.308 | 1.551 | 0.808 |
| 1992 | 1.060 | 0.938 | 0.874 | 1.225 | 1.591 | 0.840 |
| 1994 | 1.023 | 0.984 | 0.740 | 1.196 | 1.525 | 0.751 |
| 1996 | 1.017 | 0.935 | 0.794 | 1.092 | 1.535 | 0.857 |
| 1998 | 1.100 | 1.246 | 0.680 | 1.041 | 1.517 | 0.988 |
| 연평균 (78-98) | 1.060 | 1.047 | 0.740 | 1.179 | 1.649 | 0.820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UN.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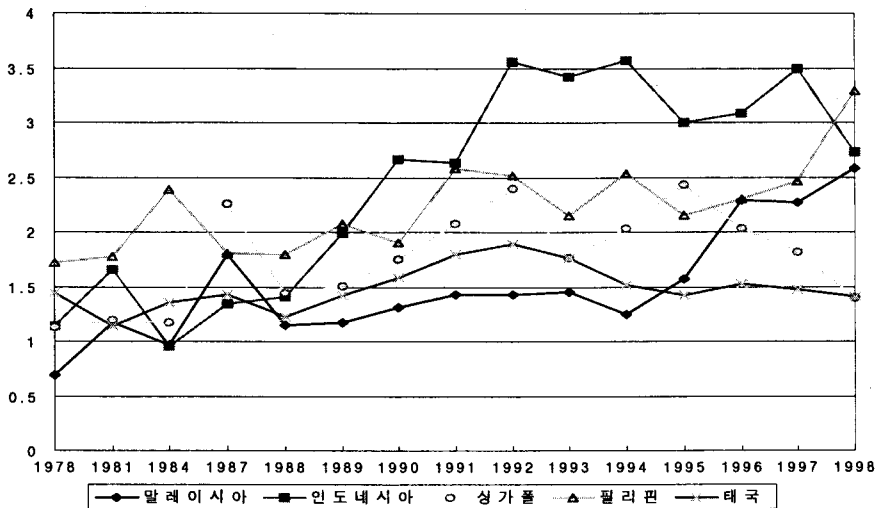
Commodity trade Statistics, UN. 각년도에 의해 산출.

미국의 경우, ASEAN지역과 각국가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20년간의 무역결합도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ASEAN 지역과의 무역결합도는 1978년 1.152에서 1998년 1.100으로 증감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국별로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필리핀은 1980년대에 미국이 이 시장에 대한 상당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결합도 수치는 1990년대 들어서 하락하였는데, ASEAN 여타국가에 비해 필리핀은 평균 1.5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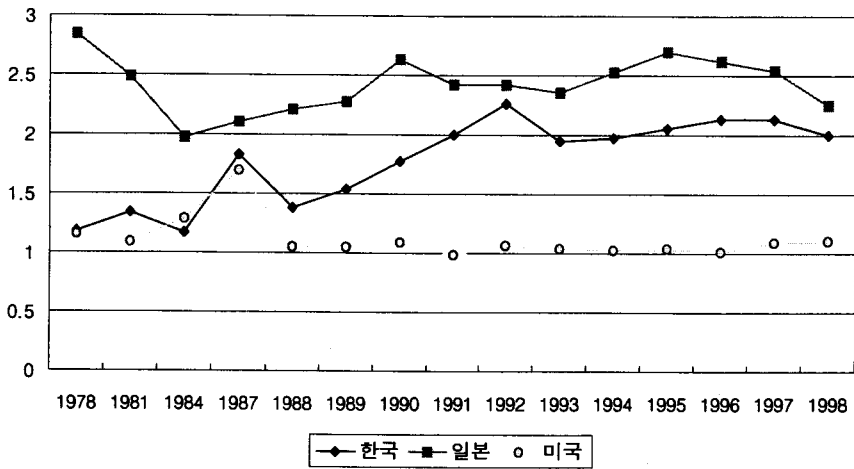
주목할점은 한국의 경우 ASEAN 시장에

서 무역결합의 비율은 점차로 높아가고 있는데 지난 20년간에 걸친 추이를 볼 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한국의 주요시장으로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반적으로 ASEAN 각 국가에서 무역결합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로, ASEAN 각 국가들이 기존 일본의 무역영향력에서 점차적으로 여타 시장으로의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ASEAN 지역이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른 경제위축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과 대만,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ASEAN에 대한 투자비중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은 ASEAN 각국과의 무역결합도 면에서 집중도없이 상대적인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ASEAN 각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변화추이



〈그림 2〉 ASEAN에 대한 무역결합도의 변화추이

Ⅲ. 한국의 대ASEAN 정보통신산업

1. 대ASEAN 국가별현황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대ASEAN 수출입현황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4, 5>와 같다. 각각 2001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입규모를 기준으로 아세안에서의 수출입 규모를 정리하고 있다. ASEAN 국

가중 정보통신산업 수출상위 5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ASEAN 국가중 싱가포르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ASEAN에서 정보통신산업 수입상위 5개국을 열거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입상위 5개국 중에서는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표 4〉 ASEAN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수출 상위현황

(단위 : 백만불)

| 연 도 | 2000년상반기 | 2000년말 | 2001년상반기 |
|-------|----------|--------|----------|
| | | | 금 액 |
| 싱가포르 | 1,676 | 3,506 | 1,388 |
| 말레이시아 | 895 | 1,922 | 591 |
| 필 리 핀 | 830 | 1,727 | 531 |
| 태 국 | 322 | 735 | 292 |
| 인도네시아 | 109 | 230 | 100 |

자료 : ETRI

〈표 5〉 ASEAN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수입 상위현황

(단위 : 백만불)

| 연 도 | 2000년상반기 | 2000년말 | 2001년상반기 |
|-------|----------|--------|----------|
| | | | 금 액 |
| 말레이시아 | 870 | 2,021 | 954 |
| 싱가포르 | 1,074 | 2,120 | 864 |
| 필 리 핀 | 479 | 1,155 | 610 |
| 태 국 | 288 | 673 | 297 |
| 인도네시아 | 60 | 110 | 58 |

자료 : ETRI

등 상위 2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입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대ASEAN 수출입에서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개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흑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그 수치는 싱가포르에서 더 크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2개국은 무역수지적자 규모도 마찬가지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말 을 기준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중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였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일본에 대한 1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말레이시아에 대한 적자도 4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적자 국가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기술격차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2. 대ASEAN 품목별현황

2000년말 싱가포르에 대한 1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는 기기는 부품, 반도체 및 부분품, 정보통신기기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한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에 있어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및 부분품, 정보통신기기가 동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는 1억불 이상에서 20억불까지의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이 부품에 있어서는 모든 ASEAN 국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억불 이상의 흑자를 나타내는 품목을 각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부품과 전자관 및 부분품에서 인도네시아는 부품과 정보통신기기, 싱가포르는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및 부분품, 정보통신기기, 필리핀은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

3) 아시아지역 IT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정보통신 총서 02-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12. pp.180.

도체 및 부품품, 정보통신기기, 태국은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전자관 및 부품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1년 상반기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와 품목들은 싱가포르에서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및 부품품, 정보통신기기를 꼽을수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를 들 수 있다.

르에서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및 부품품, 정보통신기기를 꼽을수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를 들 수 있다.

〈표 6〉 대싱가포르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231 84.3% | 148 214.6% | 82 5.4% | 159 43.5% | 44 -38.3% | 116 187.5% |
| 유선통신기기 | 45 -24.2% | 141 242.8% | -96적자 전환 | 18 -21.4% | 42 -38.3% | -24 -47.1% |
| 무선통신기기 | 186 182.2% | 7 23.0% | 178 198.3% | 141 60.5% | 2 -37.3% | 139 64.0% |
| 정보기기 | 146 32.6% | 848 70.7% | -702 81.6% | 53 33.7% | 236 -46.6% | -183 -54.6% |
| 컴퓨터본체 | 24 160.3% | 188 118.5% | -164 113.4% | 17 146.0% | 76 -11.2% | -59 -25.1% |
| 컴퓨터주변기기 | 122 20.9% | 660 60.7% | -538 73.7% | 36 9.8% | 160 -55.2% | -124 -61.8% |
| 방송기기 | 10 198.9% | 1 34.9% | 9 222.0% | 5 -17.3% | 0 7.1% | 5 -17.6% |
| 부품 | 3,120 29.0% | 1,123 28.8% | 1,998 29.1% | 1,171 -22.9% | 584 4.1% | 587 -38.8% |
| 반도체 및 부품품 | 2,918 34.8% | 996 30.0% | 1,922 37.5% | 1,092 -22.5% | 527 4.4% | 566 -37.5% |
| 전자관 및 부품품 | 84 -50.9% | 7 1,940.2% | 77 -55.1% | 36 -36.7% | 6 223.2% | 30 -44.8% |
| 기타부품 | 118 41.3% | 119 13.6% | -1 -94.4% | 43 -19.7% | 52 -5.1% | -9 1,003.8% |
| 정보통신기기 | 3,506 31.9% | 2,120 49.7% | 1,387 11.7% | 1,388 -17.2% | 864 -19.6% | 525 -13.0%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정보통신기기수출입통계 Database, ETRI, 2001.

<표 7> 대말레이시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109 182.5% | 48 316.1% | 61 126.0% | 79 52.8% | 31 57.5% | 48 49.9% |
| 유선통신기기 | 14 218.8% | 26 737.2% | -13적자 전환 | 3 -70.7% | 15 28.4% | -13 307.0% |
| 무선통신기기 | 96 177.9% | 21 157.3% | 74 184.5% | 77 78.1% | 16 101.5% | 61 72.8% |
| 정보기기 | 54 44.1% | 407 69.1% | -353 73.7% | 39 55.8% | 136 -34.1% | -97 -46.6% |
| 컴퓨터본체 | 10 6,801.1% | 46 133.6% | -36 85.3% | 9 3,179.9% | 13 -43.9% | -4 -81.3% |
| 컴퓨터주변기기 | 44 18.6% | 361 63.4% | -317 72.5% | 31 22.6% | 123 -32.9% | -93 -41.6% |
| 방송기기 | 0 46.3% | 0 18,664.7% | 0 -85.9% | 0 63.3% | 1 6,430.2% | 0적자 전환 |
| 부품 | 1,758 -19.1% | 1,566 64.9% | 192 -84.3% | 472 -42.3% | 786 22.3% | -314적자 전환 |
| 반도체 및 부분품 | 1,364 -24.8% | 1,392 69.5% | -28적자 전환 | 320 -48.9% | 709 24.8% | -389적자 전환 |
| 전자관 및 부분품 | 279 -4.1% | 143 36.1% | 136 -26.8% | 96 -35.5% | 63 0.7% | 33 -61.5% |
| 기타부품 | 115 70.7% | 31 32.5% | 84 91.4% | 56 30.2% | 15 18.0% | 42 35.1% |
| 정보통신기기 | 1,922 -14.6% | 2,021 68.2% | -99적자 전환 | 591 -34.0% | 954 9.7% | -363적자 전환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표 6>과 동일

한편, 2000년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국가와 품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필리핀의 경우 정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태국도 정보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의 동일한 품목에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과 태국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비슷하고 말레이시아는 두 국가의 적자폭보다 더 크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보기기와 컴퓨터본체, 컴퓨터주변기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적자폭이

큰 순위를 보면 정보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도체 및 부분품, 정보통신기기, 싱가포르는 컴퓨터본체순이다. 2001년 상반기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국가와 품목은 태국은 정보기기, 컴퓨터주변기기를 들 수 있다.

<표 8> 대태국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138 220.7% | 14 102.0% | 124 243.2% | 99 76.8% | 7 7.1% | 91 86.3% |
| 유선통신기기 | 17 42.9% | 10 89.6% | 8 9.2% | 9 9.5% | 6 31.4% | 3 -18.8% |
| 무선통신기기 | 121 290.0% | 4 136.9% | 117 299.5% | 89 88.5% | 1 -49.3% | 88 94.7% |
| 정보기기 | 24 -15.8% | 251 56.7% | -226 72.8% | 11 -38.2% | 127 35.4% | -116 53.2% |
| 컴퓨터본체 | 2 142.8% | 0 -27.6% | 2 250.9% | 2 85.4% | 0 2,341.6% | 1 68.2% |
| 컴퓨터주변기기 | 22 -21.0% | 250 56.9% | -228 73.5% | 10 -44.1% | 127 35.2% | -117 53.4% |
| 방송기기 | 2 69.5% | 0 650.2% | 2 62.9% | 1 -7.1% | 0 58,554.2% | 1 -29.9% |
| 부품 | 570 22.3% | 409 64.8% | 161 -26.0% | 181 -26.5% | 163 -12.9% | 18 -69.5% |
| 반도체 및 부분품 | 294 44.1% | 325 69.1% | -30적자 전환 | 90 -27.1% | 124 -14.0% | -34 62.3% |
| 전자관 및 부분품 | 212 1.4% | 44 63.3% | 168 -7.7% | 66 -29.5% | 17 -32.8% | 49 -28.2% |
| 기타부품 | 63 20.6% | 40 37.4% | 23 -0.3% | 25 -14.8% | 21 26.1% | 3 -72.1% |
| 정보통신기기 | 735 36.2% | 673 62.3% | 62 -50.5% | 292 -9.2% | 297 3.4% | -5적자 전환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표 6>과 동일

<표 9> 대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33 41.5% | 8 89.8% | 25 30.8% | 8 -54.9% | 3 -46.8% | 5 -57.9% |
| 유선통신기기 | 6 23.7% | 4 260.5% | 2 -37.9% | 3 -28.3% | 0 -94.4% | 3 45.4% |
| 무선통신기기 | 27 46.4% | 4 34.6% | 23 48.8% | 5 -64.1% | 2 -0.4% | 2 -78.9% |
| 정보기기 | 4 -75.1% | 33 49.3% | -28 581.6% | 2 55.7% | 19 -3.6% | -17 -8.7% |
| 컴퓨터본체 | 1 -70.2% | 0 3115.2% | 1 -70.5% | 1 123.0% | 0 -11.5% | 1 124.7% |
| 컴퓨터주변기기 | 4 -75.8% | 33 49.2% | -29 364.2% | 2 44.2% | 19 -3.6% | -17 -7.1% |
| 방송기기 | 2 212.2% | 0 510.8% | 2 211.6% | 1 -38.4% | 0 168.2% | 1 -39.2% |
| 부품 | 191 29.0% | 69 2.6% | 121 51.3% | 88 0.2% | 36 1.7% | 52 -0.8% |
| 반도체 및 부분품 | 15 2.7% | 12 1.7% | 3 7.0% | 8 -8.5% | 6 34.3% | 2 -58.7% |
| 전자관 및 부분품 | 119 19.6% | 48 -2.7% | 71 41.6% | 50 -5.8% | 25 -2.0% | 25 -9.3% |
| 기타부품 | 58 66.9% | 10 41.8% | 48 73.2% | 31 14.7% | 5 -9.0% | 26 20.6% |
| 정보통신기기 | 230 21.4% | 110 17.5% | 120 25.3% | 100 -8.5% | 58 -3.9% | 42 -14.1%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표 6>과 동일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에 있어 한국이 아세안국가중에서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가장 큰 손실없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수출입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서 정보통신

기기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2000년말 한국이 아세안 각국에서 수익을 거둔 흑자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단말기와 천연색의 음극선관(일명 브라운관)이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무역수지 흑자상위 품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표 10> 대베트남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20 -15.0% | 10 461.1% | 10 -55.0% | 14 30.0% | 3 -15.9% | 11 49.4% |
| 유선통신기기 | 18 -18.7% | 10 461.3% | 8 -62.2% | 12 20.7% | 3 -15.9% | 9 38.3% |
| 무선통신기기 | 2 35.4% | 0 -58.3% | 2 35.5% | 2 128.6% | 0 367.3% | 2 128.5% |
| 정보기기 | 6 255.2% | 0 896.8% | 6 255.1% | 2 -41.4% | 0 - | 2 -41.4% |
| 컴퓨터본체 | 4 888.7% | 0 - | 4 888.5% | 0 -90.5% | 0 - | 0 -90.5% |
| 컴퓨터주변기기 | 1 19.4% | 0 518.3% | 1 19.3% | 1 134.3% | 0 - | 1 134.3% |
| 방송기기 | 1 439.5% | 0 - | 1 439.5% | 0 146.8% | 0 - | 0 146.8% |
| 부품 | 26 28.1% | 12 -7.6% | 13 102.5% | 11 -21.9% | 12 277.3% | -1적자 전환 |
| 반도체 및 부분품 | 4 249.5% | 7 233,938.7% | -3적자 전환 | 1 -83.3% | 9 388,520.8% | -9적자 전환 |
| 전자관 및 부분품 | 13 11.1% | 1 -86.4% | 12 221.5% | 5 -15.6% | 0 -99.9% | 5 -4.2% |
| 기타부품 | 8 18.0% | 4 -13.0% | 3 132.4% | 5 14.9% | 2 1.9% | 2 32.2% |
| 정보통신기기 | 52 14.5% | 23 48.9% | 29 -3.0% | 26 -3.1% | 14 130.2% | 12 -43.4%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표 6>과 동일

<표 11> 대필리핀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2000년 말 | | | 2001년 상반기 | | |
|-----------|-----------------|----------------|---------------|---------------|----------------|---------------|
| | 수 출 | 수 입 | 수 지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통신기기 | 228 179.4% | 31 130.0% | 198 189.0% | 132 18.9% | 13 -28.3% | 119 28.4% |
| 유선통신기기 | 10 3.0% | 6 50.2% | 3 -33.1% | 3 -48.7% | 1 -68.1% | 2 -33.0% |
| 무선통신기기 | 219 201.9% | 25 164.4% | 194 207.4% | 129 22.8% | 12 -21.4% | 116 30.7% |
| 정보기기 | 12 -11.5% | 243 49.4% | -231 55.2% | 2 -74.0% | 100 -25.0% | -98 -22.4% |
| 컴퓨터본체 | 0 36.4% | 0 237.3% | 0 31.9% | 0 -61.3% | 3 53,358.1% | -3적자 전환 |
| 컴퓨터 주변기기 | 12 -12.2% | 243 49.4% | -231 55.2% | 2 -74.4% | 97 -27.1% | -95 -24.7% |
| 방송기기 | 1 116.5% | 0 324.0% | 0 32.2% | 0 -83.5% | 0 -96.9% | 0 -0.7% |
| 부품 | 1,485 -12.6% | 881 71.0% | 605 -49.0% | 398 -44.1% | 497 51.7% | -100적자 전환 |
| 반도체 및 부분품 | 1,372 -13.4% | 820 65.8% | 552 -49.4% | 378 -42.0% | 468 51.3% | -90적자 전환 |
| 전자관 및 부분품 | 62 -22.0% | 3 11.5% | 59 -23.1% | 4 -90.0% | 2 68.3% | 2 -94.8% |
| 기타부품 | 51 48.3% | 58 223.6% | -7 적자 전환 | 16 -24.6% | 28 56.3% | -12적자 전환 |
| 정보통신기기 | 1,727 -3.8% | 1,155 67.1% | 572 -48.2% | 531 -36.0% | 610 27.2% | -79적자 전환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은 적자액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표 6>과 동일

아세안 각국에서 무역수지 흑자상위 품목을 보면 이동전화단말기, MOSA메모리, 천연색의 음극선관, 반도체임가공 등을 들 수 있다. 대베트남의 무역수지 흑자상위 품목

을 보면 기타 전자관부분품,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도체, 새도우마스크, 스위치 순이다. 이 품목들은 현재도 주요 흑자품목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한국이 아세안 각국에서

우위를 점했던 품목들이다.

2000년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상위 품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MOS메모리, 싱가포르는 반도체임가공, MOS메모리, 모듈, 이동전화단말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도체임가공과 MOS메모리는 8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반도체임가공, MOS메모리, 이동전화단말기 순이다. 태국은 천연색의 음극선관과 이동전화단말기이다.

따라서 이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이 주요 수출전략 품목인 이동전화단말기는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흑자를 이루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한국이 ASEAN 각국에서 거둔 무역수지 적자품목을 살펴보면, 컴퓨터 기본구성장치와 관련한 마이크로컴퓨터(MPU, MCU, MPR), 하드디스크드라이버의 적자가 아세안 각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ASEAN 각국에서 무역수지 적자상위 품목은 마이크로컴퓨터(MPU, MCU, MPR), 하드디스크드라이버, 광디스크드라이버, 잉크젯프린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베트남 무역수지 적자상위 품목을 보면 반도체임가공, 고정식축전기 등이 있다.

2000년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상위 품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마이크로컴퓨터, 주기판, 하드디스크드라이버로 나타났고, 싱가포르는 하드디스크드라이버, 중대형컴퓨터, 필리핀은 마이크로컴

퓨터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이크로컴퓨터는 한국이 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한국이 ASEAN 각국에서의 무역수지 적자품목은 마이크로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버, 광디스크드라이버 등이 있다. 한편, 2001년 상반기에 1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품목들은, 말레이시아의 마이크로컴퓨터 3억5천만불 적자,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는 마이크로컴퓨터 등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싱가포르의 마이크로컴퓨터의 경우 2001년 상반기들어 큰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000년 말에 비해 반도체임가공의 적자폭이 크고, 베트남의 경우 여타 ASEAN국가들과는 다른 품목이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 상반기들어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하드디스크드라이버, 무선통신송수신기의 적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품목에 대한 다른 ASEAN 국가에서 의존했던 수입노선이 베트남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의 정보기술(IT)산업은 현재 초기형성 단계지만 95년 이후 매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기틀을 다지고 있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IT관련 산업이 초기형성단계에 있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주요 업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높고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도 육성을 서두르

고 있는 이동전화분야와 컴퓨터 관련 부품 분야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여지가 매우 넓다. 또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PC는 수입산 PC와 현지 조립PC로 구분된다. 아직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현지 조립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컴퓨터 기본 부품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부품을 전량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현지 조립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판로를 찾고 있는 국내 컴퓨터 관련 부품 업체들의 베트남 공략은 필수적이다. 한편, ASEAN 10개 회원국은 작년 첫 통신장관 회담에서 역내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합의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이 합의한 'e-아세안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5개 실무위를 구성하여 IT관련 무역투자 활성화와 역내 IT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IV. 결 론

ASEAN지역 국가들은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현재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급정도는 낮으나, 국가규모가 커서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들도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급정도가 더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와 각 국가들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총량을 기준으로 교역규모가 아주 큰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교역규모가 다소 큰 편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SEAN지역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ASEAN지역의 IT산업 특성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IT인프라를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하여 왔으며, 지역내의 협소한 IT시장을 탈피하여 세계 IT 시장을 무대로 IT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모델을 채택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IT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1997년 아시아 지역의 금융·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지역내 IT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고,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 IT 산업의 기여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기 둔화는 수출중심형 IT 산업 육성을 특징으로 하는 ASEAN 지역의 IT 산업을 일시적인 위축상태로 반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ASEAN 지역 IT 산업의 일시적 위축은 미국의 경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회복되고 있어 가시적인 IT산업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ASEAN지역의 IT 산업

에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져올 요인으로는 ASEAN지역내 신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ASEAN 각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IT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체계의 출범에 따라 많은 ASEAN 지역 국가들이 IT 시장에서도 경쟁을 도입하고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ASEAN지역의 IT 산업은 우리에게도 지역내 IT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는 특히, IT 산업 분야로는 이동통신산업 및 인터넷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역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ASEAN IT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지역내 국가들과의 IT 산업 관련 R&D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박순철의, 한·ASEAN간 무역결정패턴 비교 분석, 산업연구원, 1989.12.
- 세계IT통계 현황 및 산업전망, 정보통신 총서 02-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12.
- 2002 IT 컨퍼런스, 2001.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itfind.or.kr>
- 아시아지역 IT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정보통신 총서 02-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12.
- 해외정보통신산업, 하나로통신 디지털경제연구원, 2002.2.
- I. Yamazawa, "Intensity Analysis of World Trade Flow",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0-2(1970), pp.61~90.
-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1978~1998.
- _____,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8~1998.

A study on Korea's IT Industry analysis to ASEAN

Hong-Kyun, Bae

Abstract

In Korea's point of view the ASEAN is geographically located near to Korea's peninsula and can supply Korea with IT products safely, it is also a significant market that we can effectively export IT products.

This study analyzes ASEAN as a strategic market, by enlarging the IT export and import, Korea's IT market excessively leaning up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market, so ASEAN is the proper market to which we can drive multilateral trade of IT market and multikinded trade of goods. In order to enhance exports of various IT products, we have to retain a good reputation and to remove revolting factors. Also, the marketing of Korea's IT export against ASEAN have to reinforce and to activate the direct investment, plant exports, and loan credi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Korea's IT Industry analysis to ASEAN, and finally we suggest the way to solve the main problems.